

## 4~5» 양캠프 총학생회사업 성과



## 8» 교내 석면 건축물



## 10월 넷째 주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 ① 기간 : 10월 17일 ~ 10월 21일
  - ② 참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완료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 참고.



### 평화콘서트

평화의 날 지정 기념 평화콘서트가 10월 14일 국제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와 삼성전자의 공동주최로 국제캠퍼스 황주호 부총장, 삼성전자 이승백 상무, 정찬민 용인시장 등을 포함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사진=기호웅 기자)

## Newsmaker

세계광고대전 클리오 어워드 수장자  
김종록(시각디자인 2011)·김예인(시각디자인 2012)



## 사회적 메시지를 고민하는 미래 광고인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 우리학교 학생들이 ‘칸국제광고제’, ‘뉴욕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불리는 ‘클리오 어워드(CLIO AWARDS)’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광고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이 상은 1959년 시작된 이후 텔레비전·라디오·인쇄·옥외 등 여러 분야의 광고를 시상하고 있다. 이 중 학생부문 옥외광고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한 김종록(시각디자인학 2011) 군과 김예인(시각디자인학 2012) 양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양은 ‘물 낭비를 방지하자’는 주제를 선택했다. 김 양은 “전기, 공기, 토양 등 환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봤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깝고 실천도 쉬운 이슈라고 생각해 물 낭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제가 좋다고 광고도 좋은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 낭비를 막기 위한 메시지를 광고에 어떻게 담아내 쉽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이다. 두 사람은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문제의 본질부터 파악하기로 했다.

### 공익광고의 가치를 극복

### 다량의 물소비 경각심 주려해

김 양은 “물의 소중함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낭비를 인식하지 못 한다”라며 “쉽게 쓸 수 있고 쓴 물은 순식간에 배수구로 빠져 나가니 얼마나 낭비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였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물이 함부로 버려지는지를 일깨우려고 했고, 이를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부피의 물체를 물 스티커로 감쌌다. 클리오 어워드 측은 작은 변화를 통해 문제를 무시코 지나치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군은 “광고천재라 불리는 이제석광고연구소의 이제석 대표, 독도알림이 활동으로 유명한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처럼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잘 알릴 수 있는 광고인이 되고 싶다”며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사회를 바꾸는 그들의 광고를 언젠가 볼 수 있길 기대한다.

그들이 출품한 광고는 “Wrap it all”이라는 제목이다. 이들은 버스나 건물처럼 큰 물체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일상의 공간을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물의 양을 인쇄한 스티커로 감쌌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티커를 통해 사람들은 평소 얼마나 많은 물을 낭비하고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김 양은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부피가 큰 물체에 얼마나 많은 물을 넣을 수 있는지 보여주려 했다”라며 “또 물이 얼마나 빨리 소비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광고의 목적을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에서는 감동마저 느껴진다.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광고라면 그 매력은 더욱 커진다. 김 군은 “이해득실이 분명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상업광고와는 달리 공익광고는 사회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익광고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고민하던 김 군과

▶3면으로 이어짐

# 취업률 개선? 학사제도 점검부터 전공이수 높이고 재수강제 엄격해져야

### 국제캠프 취진처 취업률 개선안 분석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지난 8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2016년 우리학교 취업률은 51.2%였다. 2014년부터 3년간 꾸준히 상승했지만 성균관대(69.3%), 고려대(66.6%), 한양대(64.5%), 서울대(60%), 연세대(59.4%), 중앙대(58%), 서강대(56.8%) 등 주요 대학에 비하면 저조한 수치다. 근래 가장 수치가 높았던 2013년 6월의 우리학교 취업률(52.5%)을 보더라도 전국 4년제 대학 중에 28위였다. 이는 주요대학을 포함한 금오공과대(70.1%), 광운대(62.6%), 가천대(54.8%), 명

지대(54.2%), 경기대(53.2%)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국제캠퍼스(국제캠프) 취업진로지원처(취진처)는 2014년을 기준으로 원인분석을 진행해 <취업률 현황분석 및 제고방안>를 마련했다. 국제캠프 취진처는 여학생 비율, 예체능계 비율, 소득분위, 입학성적 그리고 학부교육제도 등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분석했다.

먼저 여학생 비율에 대해 취진처 김진장 처장은 “우리학교가 여학생 비율이 높아 취업률이 낮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여학생비율은 47%로 평균 41%인 다른 학교에 비해 6%p높았지만, 여학생들을 제외한 취업률은 51.2%로 2014년 취업률 50.6%에 비해 0.6%p만 상승해 영향은 거의 없었

다. 다음으로 예체능계 비율에 대해 김 처장은 “우리학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 예체능계 비율이 높다”며 “이로 인해 취업률이 낮아졌는지 확인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취진처가 제시한 자료에서 예체능계열학과 졸업생들을 제외한 취업률을 계산해 보면 53.4%로 2.8%p정도 상승한 모습이다. 김 처장은 “예체능 비율의 영향은 여학생비율에 비하면 크지만 다른 비교대학의 취업률과 비교했을 때 예체능계 비율이 취업률 저조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소득분위와 입학성적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학부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서술돼 있었는데, 우리학교 재수강제도는 비교적 제한이 없었다.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 수도 제한이 없으며, 재수강 이후 취득할 수 있는 최고학점에 대한 제한도 없다. 재수강제도에 대해 김 처장은 “특정 학년에 수강해야하는 과목을 고학년이 재수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만족할만한 성적을 받지 못한 해당 학년의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다시 재수강을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학생들의 재수강 현황을 살펴보면 재수강 학생의 비율은 24.4%로 4명 중 1명이 재수강을 하고 있다.

▶3면으로 이어짐

## 교강사 임의의 시간표 변경 제재 필요

### 수강신청 무엇이 문제?

임창민 기자 changmin095@khu.ac.kr  
정현진 기자 ohyunjin@khu.ac.kr

2학기 수강신청에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수강신청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희망과목담기부터 수강신청, 심지어는 개강 후까지도 이어지는 수업 시간 변경, 교강사 변경, 폐강 등의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수강신청 레퍼토리이다. 다음은 제보를 재구성한 피해사례다.

**#1.**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A군은 개강 전주인 8월 22일, 자신이 수강신청 했던 글쓰기2 수업의 정은기 교수가 이석호 교수님로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글쓰기1 수업을 들은 후 해당 교수님의 수업과 잘 맞아 글쓰기2도 동일한 교수의 수업으로 수강신청한 것인데, 교수가 바뀌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낭패를 보았다.

**#2.** B군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개강 2주전인 8월 16일, 글쓰기2 교수가 바뀌었다는 행정실 문자를 받

은 것이다. 수강신청 때만 해도 김진해 교수의 수업이었는데, 결국 변경된 박정은 교수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3.** 익명을 요구한 F군은 ‘삶의 지혜2’ 과목을 신청했지만 개강 다음날인 9월 2일 교강사 사정으로 폐강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신청 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이 아닌 교강사 사정으로 인한 폐강이라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개강 이후에 결정된 폐강에도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점에 답답할 뿐이었다.

▶6면으로 이어짐

###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다음 신문은 중간고사로 인해 3주 뒤인  
11월 7일에 발행됩니다.



시선

사설

대학의 뿌리 뒤흔드는 ‘갑질’ 사건을 바라보며

대학에 교수나 학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즉시 교육의 흐름은 멈추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그 존재의의를 잃게 될 것이다. 대학에 직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적인 실무능력으로 대학 행정을 도맡는 직원이 부재할 경우, 교수와 학생이라는 두 톱니바퀴는 서로 맞물리기만 할 뿐 원활히 돌아가지 못해 점차 마모되다가 결국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그 존재의의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의 3주체로 일컬어지는 교수와 학생, 직원은 위계적인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인 대등관계에 놓인다. ‘대학 구성원’의 이름 아래 이들은 서로의 역할과 의의를 결코 대신해줄 수 없는 독립적인 집단이 되며,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상호간에 협력하는 일 자체가 곧 ‘대학운영’의 요체가 된다.

이에 비추어, 종종 발생하는 일부 교수의 타 구성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 행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의 차원을 넘어 대학 구성의 본질을 망각하는 무지하고 조직과괴적인 행태로서 우려를 낳는다고 하겠다.

이번에는 교수가 직원에 대해 폭력적 행위를 가한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우리신문이 취재 도중 우연히 입수한 노동조합의 성명서 상에는 ‘10월 10일 모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소속 교수가 노동조합원(직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안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내린 조치에 불만을 품고 단과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고성과 폭언,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저지르며 해당 직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학장실 문을 잠그고 직원이 나갈 수도, 누군가 들어갈 수도 없는 ‘감금’ 상황을 조성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5년 개교 66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명목 아래 ‘상호 존중 대학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구성원 선언문’을 작성하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뿐이었다. 이후 제 단체별로 직급 간, 구성원 간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인 ‘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오고가다 했으나, 아직까지 그 결론은 나와 있는 바가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아무리 멋진 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한들 그 이후에 이를 실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 실체화, 구조화해놓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가치해진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선언문 선언 이후 이것을 보도자료화 시켜 대학의 이미지 개선에만 활용하고 이를 절차화하여 응분의 징계방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정작 중요한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은 요원해지고 ‘재수 없어 걸렸’다는 식의 구태만이 남을 것이다.

다시 강조컨대, ‘구성원 간 상호존중’은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건강한 조직문화를 보장하여 대학 발전의 전제가 되는 핵심적인 테제다. 이것을 흔드는 행위는 곧 대학을 뿌리부터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학주보는 이번에 벌어진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히 취재하여 보도하겠다.

불 붙은 입학금 반환 운동  
전액 반환 목표로 소송 청구

미디어 여론동향 2016.10.5 ~ 10.1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 4일 국제캠퍼스에서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경희대시부 서포터즈’ 주도로 입학금의 구체적 산정내역과 사용내역 부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불붙은 입학금 사용내역 공개요구...오는 12일에는 소송 청구 예정/대학주보 온라인, 2016.10.5) 이들은 대학마다 입학금 금액이 임의적이라는 점, 명분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록금과 별도로 징수되지만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입학금 전액 반환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측은 입학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학금은 등록금과 같

만평



이 주의 주제 - 총학생회의 역할

학교 밖 총학, ‘불편한 시선’ 직시해야

이수형 기자

dtbdf112@khu.ac.kr

총학생회의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학생시선이 곱지 않다. 서울캠퍼스 제48대 총학생회(총학), ‘취향저격’은 임기가 시작된 1월에만 8번의 집회에 참가했다. <‘이것은 대학이 아니다’ 교육현실 보고대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 규탄 기자회견>,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1일 실천> 등 사안도 다양한데, 잦은 외부활동은 어느 샌가 서울캠퍼스 총학의 주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총학은 태생이 운동 집단이다. ‘총학생회’는 대학생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만든 사회운동단체다. 독재의 시대, 총학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목소리 낼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총학이 사회운동기구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학내사업에 주력하길 바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총학이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화된 정치이념을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는 데다, 총학이 아니라도 각종 시민단체, 정당 등 학생들이 ‘운동’할 자리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탓이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감시가 학내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운동’해서 ‘저항’해야 할 대상이 국가에서 학교로 넘어온 것이다. 나라가

민주화되는 동안 대학은 쉽 없이 덩치를 늘려왔지만 학내 민주주의는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학교와 학생 간에는 끊임없이 소통문제가 발생했고, 나아가 학생은 학내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곤 했다. 전학대회가 잇달아 개최에 실패하는 등 정작 학생사회의 민주주의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학생들의 ‘불편한 시선’에 한몫했다.

더군다나 총학의 외부활동은 주로 타 대학 학생회나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대학교육지킴이 대학생 네트워크>, <대학생 청년 공동행동네트워크>, <세월호 2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 등이다. 학생회칙은 외부기구와의 연대는 정책투표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참가 직전에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뿐이다. 서울캠 총학이 주도한 <대학교육지킴이 대학생 네트워크>가 발족될 당시 우리신문이 이를 지적하자, “연대기구가 완전히 결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투표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다.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보고도 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외도’가 계속되니 학생들의 지지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지난 8월에 열린 <전국 대학생 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들조차 외부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

대학생의 유일한 정치참여 통로로 기능하던 총학은 이제 없다. 학교 밖에서만 일하는 총학은 공감 받지 못한다.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하고 나간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총학이 진정 집중해야 할 것은 ‘대학의 민주화’다.

결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두 명이 월 50만 원 이상을 내는데, 최소한 제공해야 할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고 의무만 지우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라고 썼다. 113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2008년 새 건물일 때 사진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웃기고 방학 중 돈 들어서 소독하고 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입사 시 점검해 간 부서진 비품은 학기 중반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막상 청소해 놓으니 3초 만에 점검 끝내는 건 뭐냐’ 등의 의견을 남겼다.

지난달 29일 산학협력단 주도의 첫 번째 브라운백 세미나가 전자정보대학에서 열렸다.(자유로운 학술교류 통해 연계협력 활성화/대학 홈페이지 Focus, 2106.10.5) 브라운백 세미나는 교내 연구자 간 연구정보 교류와 새로운 융합 분야 개척을 위한 자리다. 첫 세미나 주제는 ‘정밀의료와 인공지능’으로 신수용(컴퓨터공학) 교수가 정밀의료 발전 계획과 인공지능의 기여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병원의 정보화 수준이 높고 단일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분야에 빅데이터 이용 등 IT분야의 기여가 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권위는  
자발적 존중에서 나오는 것

세시봉

민성원 기자

minsw0280@khu.ac.kr



유행은 돌고 돈다고 했던가. 한때 예능계의 트렌드였던 ‘호통’ 키워드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 주인공은 예능인들이 아니라 사회적 리더들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해프닝 하나가 뉴스 상단을 점령했다. 지난 6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던진 “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느냐”는 질의가 많은 이들의 빈축을 샀다. 하지만 여론이 문제시한 것은 발언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에 동반한 그녀의 발언 태도였다. 교육감을 향해 다짜고짜 “사퇴하십시오!”라고 호통을 치는 국회의원의 모습에 국민들은 양천대소할 수밖에 없었다. ‘근본 없는 호통’이라며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는 이 여성 국회의원은, 알고 보니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교수 출신이었다.

사회적 리더의 호통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대선 토론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토론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난 잔치’에서 선진적인 토론을 보기를 기대했다. 허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의 토론은 난투극에 가까웠다. 비방과 말 자르기, 각종 네거티브 공격만 난무하는 이전투구였다. 특히 “내가 대통령이 되면 힐러리를 감옥에 보낼 것”이라는 트럼프의 호통은 단연 압권이었다. CNN이 “역대 최악의 진흙탕 싸움”이라고 평론한 이 토론의 주인공들은 세계 최강국의 걸출한 대선후보들이었다.

리더들의 연이은 ‘호통’ 문제

대중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경비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이 교수는 경비원을 향해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된다”며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신문이 최근 다루었던 체육대학 A학과 학생장의 폭행사건이나, 외국어대학 B학과 학생장의 SNS 망언 역시 맥락은 같다. ‘소통’은 사라지고 ‘불통’을 넘어 온통 ‘호통’ 뿐이다.

한 학과의 학생장에서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강대국의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사회의 인정을 받는 엘리트들이다. 중요한 보직을 맡고 사회를 위해 막중한 역할을 다해야 하는 자들이기도 하다.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권위가 동반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날 그들이 권위를 내세우는 방법은 다분히 원시적이다. 호통을 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으로 권위를 세우려한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권위는 ‘자발적 순응’에 기초한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존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권위다. 호통을 통해 강요된 권위는 자발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권위가 아니다. 오늘날의 엘리트들이 이 기초적인 권위의 정의를 망각한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스스로가 이 ‘호통정국’의 중심에 서 있는 한, 결코 진짜 리더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레기화)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921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김 처장은 “재수강 기준이 약한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재수강으로 인해 정작 들어야 할 중요한 전공과목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공선택 과목은 수강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4학년은 안전하게 재수강을 선택해 학점을 높이기에만 집중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현재 4학년의 재수강비율은 33%로 3명 중 1명이 재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기업이 우리학교 졸업생에 대해 평가할 때, 전공지식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전공이수 여부가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취업 후 지속적인 근무 여부를 나타내는 ‘유지취업률’에서 우리학교 졸업생은 1분기에 91.8%, 2분기에 88%, 3분기에 83.8%, 4분기에 81.6%를 기록해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18.4%가 도중에 직장을 그만두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서울대(87.5%), 연세대 (88.7%), 고려대(88.7%), 성균관대(88.5%), 한양대 (88.5%) 등 다른 주요 대학과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취진처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재수강 제도의 기준 강화이다. 자료에 따르면 주요대학 중 취업률 1위인 성균관대 같은 경우 C-이하의 과목에 대해서 4학기 이내에만 재수강이 가능하며, 취득 가능한 최대학점은 B+로 제한하고 있다. 서강대와 고려대도 이와 비슷하게 재수강제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취진처는 “재수강제도의 기준 강화가 취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 대학들은 60% 후반대의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재수강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국

외국어대(56.8%)와 서울시립대(59.4%) 그리고 건국대(53.1%)의 취업률은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재수강제도가 취업률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취진처는 두 번째 해결방안으로 전공이수학점 확대를 주장했다. 김 처장은 “우리학교의 전공 유형에는 단일전공과 다전공이 있지만 다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크지 않은 편이다”라며 “또한 인문학을 중시하는 학내 분위기가 있어 다른 학교에 비해 교양학점 비중이 큰 편이다”고 말했다. 취진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학생들의 전공이수학점은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 주요 대학 중 취업률 1위인 성균관대 경우 복수전공, 확장형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으로 전공이수학점을 높이고 있으며, 인문계 취업률 전국 1위인 고려대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다. 특히 한양대는 전공을 다양화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중국어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모든 학과가 저조한 취업률을 보인 것은 아니다. 응용화학과는 동일계열학과 주요 10개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응용화학과의 다른 학과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학부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연구프로그램은 교수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3학년 학부생들이 함께 1년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처장은 “학부연구프로그램이야말로 학생들이 해당분야에 대해 대학원생 수준의 넓고 깊은 통찰력을 체득할 수 있었고, 전문적인 실습의 기회와 연구능력 배양은 자연스레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단과대학과 학과에도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 처장은 “이제 더 이상 취업률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캠 주변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6,583원

## 아르바이트 시급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서울】 9월 28일 기준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캠퍼스(서울캠) 주변 아르바이트 공고를 분석한 결과, 고용주들이 지급하는 평균 시급은 6,583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보다 553원 많은 액수다. 자료는 등록된 공고 회기동 243건, 이문동 136건, 휘경동 83건 중 학생신분으로 병행하기 어려운 풀타임 근무와 중복된 구인공고를 제외하고 총 126건을 추려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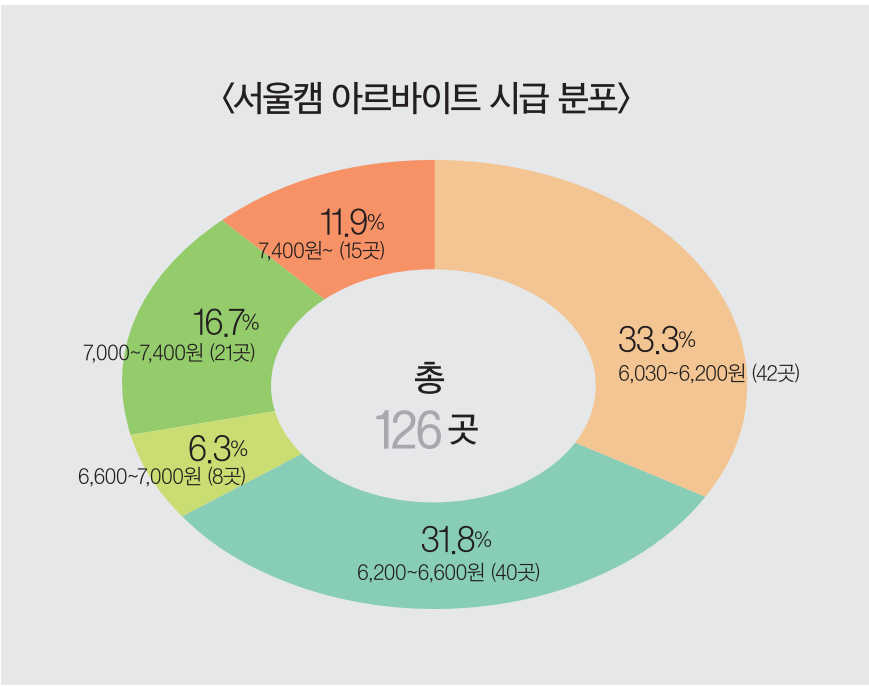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주거비, 생활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캠 주변 평균월세는 41.8만 원 <관련기사 : 대학주보 1606호 8면>이고, 2015년 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시행한 대학생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약 36만 6천 원이다. 주거비와 생활비 평균액을 더하면 78만 4천 원인데, 이는 시급 6,583원을 받으며 119시간을 근무해야 충당할 수 있다. 학업이 본분인 학생들에게 월 119시간 근무는 지나치게 길다.

### 통상임금의 50% 더 받는

### 야간수당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고용주들이 등록한 구인 홍보글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6,000원대의 시급을 지급한다고 공시하고 있었다. 공고에 적힌 시급을 분석한 결과, 126건 중 90건이 6,030원부터 6,800원을 지급한다고 게시했고, 그 중 약 절반인 42건이 시급 하한선인 6,030원이거나 급여지급의 편의성을 위해 약간의 액수를 올려 6,050원, 6,100원 등을 지급한다고 게재했다. 최저시급 수준의 업종은 음식점 서빙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가 10곳, 편의점 8곳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 강도가 임금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므로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하는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이 낮은 임금 지급 업종에 대다수 포함됐다. 반면, 시급 8,000원 이상 고임금 아르바이트는 단 7건에 불과했는데, 전단지 배포, 경희 초등학교 급식 보조, 물류 운반 및 진열 등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실시간으로 수많은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오는 만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고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야간수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인데, 특히 영업시간이 늦게까지 이어지는 주류 취급 음식점에서 문제가 자주 발견됐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야간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업체가 야간근무에 낮 근무와 똑같은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시급 6,030원에 법적 야간수당 50%를 가산하면 9,045원으로 시급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현실은 야간시급을 약간 높게 책정한 곳을 살펴봐도 7,000원 수준에 그쳤다. 야간근무 시급을 제대로 지급한다고 공시한 업체는 이문동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점포 단 한 곳이었다.

### 서울캠 주변 상권, 규모도

### 작을뿐더러 선택의 폭 좁다

한편, 우리학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 장학이란 교내·외 지정된 근무처에서 일을 하면, 급여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외부 아르바이트보다 노동 강도가 낮고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교내 근무 시 시급 8,000원, 방학 때 교외에서 근

무할 시 무려 시급 9,500원을 받는다.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25%에서 50% 이상 많은 액수다.

하지만 학교 측이 제공하는 근로장학 일자리는 우리학교 재학생 규모를 따져봤을 때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캠 주변 상권은 타 대학가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아 이마저도 선택의 폭이 적다. 아르바이트 공고가 가장 많이 등록된 대학가는 각각 3,858개, 3,848개가 등록된 건국대와 홍익대로 나타났다. 구인 공고 400여개가 등록되어있는 우리학교와 약 10배에 가까운 차이다. 상권이 큰 건국대와 홍익대 주변은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게 제공될 수밖에 없다.

생활비와 주거비, 등록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너무나도 많다. 학생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용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해야 한다면,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근무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에 놓인다. 대학생은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수입을 얻기는 쉽지 않고, 지출할 항목은 많다. 학기 중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정 안내

###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정

구분	정원내	정원외 외국인	비고
원서 접수	2016. 10. 10(월) 10:00 ~ 14(금) 17:00까지	2016. 10. 10(월) 10:00 ~ 17(월) 17:00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 대학원체 http://www.uwayapply.com
서류 제출	2016. 10. 10(월) 10:00 ~ 17(월) 17:00까지	2016. 10. 10(월) 10:00 ~ 18(화) 17:00까지	방문 제출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
서류 접수 및 도착 확인	2016. 10. 10(월) ~ 18(화) 17:00까지	2016. 10. 10(월) ~ 20(목) 17:00까지	
전형일시	2016. 11. 5(토) 10:00	2016. 11. 12(토) 10:00	학과별 실시
합격자 발표	2016. 11. 24(목) 15:00 예정	2016. 11. 24(목) 15: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7. 1. 2(월) ~ 6(금) 16:00까지	2017. 1. 2(월) ~ 6(금) 16:00까지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에 공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 공지사항 또는 '입학'메뉴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1학기 국제대학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 ● 모집 분야 및 모집인원

분야	인원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 00명
국제경영학과	석사 00명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 00명 / 박사 00명

### ● 지원 자격

- 석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박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 전형방법

- 국내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 해외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

### ● 전형일정

구분	기간
인터넷 접수	2016.10.17(월) ~ 2016.11.10(목) 24:00
지원 서류 제출	2016.10.17(월) ~ 2016.11.14(월)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2016.11.26(토) ※시간 개별 통보
해외 거주자 인터뷰	2016.11.21(월) ~ 2016.11.25(금) ※시간 개별 통보
합격자발표	2016.12.5(월)

### ● 지원방법 및 제출 서류

- 인터넷 접수 (유웨이아플라이 홈페이지) 후 지원 서류 제출
- ※ 자세한 내용은 국제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gsp.khu.ac.kr)

### ● 서류 제출

- 우편접수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제출' 기재 요]

### ● 다양한 장학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업료 100~25% 면제
- 학사조교 근무자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 가계 곤란자 대상 수업료 일부 지원
- 기숙사 입사자 전원에게 기숙사비 50%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 ● 문의

- Tel : 031-201-2146~9
- E-mail : gsp@khu.ac.kr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 2017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 · 편입생 모집

### ● 모집학과 및 전공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 장학제도

구 분	장학금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업료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다만, 정부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수업료의 15%범 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1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1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경희동문장학	수업료 10%	본교 및 호철경영전문대학 동문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목련장학, 모범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토요일 집중 강의 개설,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교과수강 가능

### ●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6. 10. 17(월) ~ 11. 4(금) 17:00
- 전 형 일 : 2016. 11. 5(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 전형료 : 전형료 면제(특별전형 특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 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기획 - 총학생회 사업 성과 점검



2월 1일 총학생회가 자율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팀플’ 관련 사업에 집중, 학생회 신뢰회복은 ‘지지부진’

#

‘취향저격’과 ‘KHU&KHU’ 선본이 48대 총학생회(총학)로서 일한지 10개월째다. 현재 49대 총학생회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이 시작됐고, 사실상 48대 총학의 임기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총학의 사업성과를 ▲학생복지 ▲대학행정 감시 ▲학생자치 강화 측면에서 살펴봤다.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교통비·자취지원금 1억 신설’ 공약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재원마련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가 컸다. 선거운동 기간에 ‘취향저격’ 선본은 강의실 방문PT 당시 ‘학교기업 KMC로부터 학교가 받기로 약속된 돈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 바 있다. 그러나 기부금 형식으로 전입되는 KMC 전입금은 매년 액수가 일정치 않은데다, 전입되지 않는 해도 있다. 또한 법인 산하 업체인 KMC가 장학지원을 위해 1억을 학교에 추가 제공하기 어려울 뿐더러, KMC 전입금은 특수목적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KMC 전입금으로 교통비·자취지원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대학에 장학금을 더 요구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장학금을 증액하겠다는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가리기 위해 KMC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KMC는 경희학원의 자회사일 뿐 학교기업이 아니다. 해당 공약은 지켜지지 못할 전망이다.

학생복지 부문

장학금 유치 공약 실패  
‘팀플’ 관련 공약 이행에 집중

‘자취방거래 게시판 신설’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총학은 ‘자주경희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자취방 매물정보, 복비시세 정보를 공유하고 계약서 쓰는 법, 계약시 유의사항을 공시하는 ‘경희인을 위한 방KHU하기’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홈페이지 어디서도 해당 게시판을 찾아볼 수 없는데, 지난 5월 총학이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트래픽 제한으로 잠시 닫아둔 상태’다. 10월인 현재까지도 해당 게시판을 찾아볼 수 없다.

학생복지 사업 관련 공약이행을 통해 보인 성과는 ▲통학버스 인천·부천노선 운행시작 ▲학생회관 세미나실 ‘두런두런’ 개실 ▲팀플 물품대여 및 ppt강연 개최 ▲대동제 부스 다양화다. 선거 당시 크게 주목받았던 팀플 관련 학사개편 공약은 이행과정 중에 있다. 해당 공약은 ▲강의계획서에 팀플여부 표시 의무화 ▲팀플 과제 중간평가제 도입 ▲팀플 강의 절대평가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학은 지난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사지원과 협의 중이다. 학사지원과 측은 “강의 계획서 양식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



서울캠퍼스 정주희(사학 2012·왼쪽) 회장, 단재민(미술학 2010) 부회장

중에 있는 ▲팀플 과제 중간평가제 도입 ▲팀플 강의 절대평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학 행정감시 부문

학생들 지지 이끌어내지 못해

총학의 행정감시 기능은 총학이 대학행정에 학생참여 주제로 유일하게 인정받는 기구인 이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우리대학이 프라임 사업(PRIME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참가, 경희미래창조소설 신설 등 여러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올해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총학은 학생여론을 모으는데 번번이 실패하며 학교와의 의견조율에서 한계를 보였다.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 시행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대학이 사업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올해 4월까지, 대학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특히 철저히 눈 밖에서 진행되는 ‘학교구조 재편’ 계획에 관련학과 학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올해가 돼서야 총학은 총장 면담을 요청하고, 대학본부에 정보공개 협조공문을 공개발송하며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발언권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는 학생여론을 효과적으로 모으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학의 힘은 12,000명 학생의 교육권에서 나온다. 학생들의 지지가 곧 총학의 협상능력을 결정한다. 이를 알고 있는 총학은 학생회장 1인 시위, 강의실방문PT 등을 진행해 학생여론을 주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규모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문지 상단에 프라임 반대 주장의 근거를 자극적으로 실어 배포해 편향성

문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논란은 프라임 사업 반대 근거의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렸고 끝내 설문은 중지됐다. 이후 총학은 정책투표를 제외한 어떤 여론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사업기획안이 교육부에 제출된 이후에서야 진행된 정책투표에 학생들은 ‘참여인원 미달’로 답했고, 끝내 프라임 사업신청은 대학본부의 계획대로 진행됐다.

프라임 사업의 사례 뿐 아니라, 자율예산 정상화운동 과정에서도 같은 이유 탓인지 4년간 삭감된 자율운영예산 84억(서울캠퍼스 기준) 중 ‘특별교부금’이란 이름으로 1억 원만이 보전되는 데 그쳤다. 경희미래창조소설 신설계획도 대학혁신위원회 유경완 학장의 사과만을 받아냈을 뿐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처럼 총학은 대학본부와의 힘겨루기에서 시종일관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푸른솔 카페집회에 대해 대학본부 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현재까지도 이는 유효하다. 입학금 폐지·반환운동은 그 당위성을 떠나, 학생여론 모집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학생자치 강화 부문

자금이용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돼

지난해 전임 47대 총학은 학생회 신뢰도 재고방안으로 ‘학생회계감사 확대시행안’을 내놓았다. 해당 안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등 자치회비 사용주체들이 정기적으로 학생감사단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전학대회 성사실패로 회계감사 관련 회칙개정안 발의가 불가능해지자, 47대 총학은 학생자치기구 회계관리양식과 감사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 총학

에 전달했다. 2015년 진행된 ‘자치회비사용 신뢰도 조사’에서 85.6%의 학생이 ‘단과대학 학생회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여 “자치회비 결산에 대한 회칙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2016.03.21 확대운영위원회) 현 총학에게서 회칙개정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전임 총학에게 전달받은 회계관리 양식 등을 각 자치기구에 전달했을 뿐이다. 지난 4일 무산된 전학대회가 특별한건 없이 소집됐던 것으로 볼 때, 총학의 회칙개정 계획은 전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임 총학이 회칙개정안까지 마련해, 최종 의결만을 남기고 있던 ‘학생회계감사 확대시행안’을 무산시킨 것이다.

‘채대 오토비 38만 원 논란’, ‘전임 문과대학 회장들 금품수수 의혹’ 등의 사건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자치기구 회계에 대한 의구심이 나날이 커져가는 중인 데다, 문과대학 의혹에 총학 정주희(사학 2012) 회장이 직접 관련된 상황이다.

또한 “단과대학 학생회의 교비사용과 달리 총학의 교비사용이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정경대학 이동진(경제학 2012) 회장의 주장에 따라 총학의 교비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총학이 스스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신뢰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한 차례의 전학대회도 열지 못한 채 대안마련이 없는 등 학생자치 부문에선 오히려 퇴보했다. 회칙개정 권한이 전학대회에 있는 이상, 연달아 무산되고 있는 전학대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총학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정 회장 본인이 “학생자치기구 선거에서 선관위의 권한남용 등으로 선거가 파행에 이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회칙을 다방면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결기구 정상화가 시급하다.

전체적으로 총학은 세미나실 마련, ppt강연, 강의계획서 개편 등을 통해 팀플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꾸렸으나, 대학본부와의 협상에서 무력했고 학생자치 발전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실패들은 다음 달 결정될 후임에게 악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총학은 현재 추진 중인 입학금 반환운동을 통해 학생여론 수렴의 좋은 선례를 마련하고, 전학대회 개최실패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총학생회 사업 성과 점검 - 기획



3월 21일 '프라임사업 준비위원회워크숍'에서 김병경 회장이 이원화 캠퍼스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벤트’에 활짝... 남은 사안 해결이 관건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경소정 기자 kyung@khu.ac.kr

48대 총학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복지 향상과 캠퍼스 이원화 문제해결에 있었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25개의 세부공약 중 간식 사업, 축제, 공동구매를 포함한 21개의 항목이 학생복지로 분류된다. 나머지는 캠퍼스 이원화 문제와 등록금정책위원회(등책위)와 관련한 대학행정 감시 항목과 자치위원회(자치회비 감사) 투명 운영,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통한 소통이 학생자치 강화의 영역으로 파악됐다. 현재 25개의 세부 공약 중 이행된 것은 9개 정도인데, 국제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은 “축제 이후 남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회의가 남아있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지금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해봤다.

●‘즉석 복지’에 집중, 구조적 문제는?

단기적인 시간 내에 시행이 가능한 복지 정책이 주를 이뤘는데 실제로 간식 사업, 기업과의 제휴 할인 또는 공동구매나 춘·추계 축제 같은 ‘이벤트상’ 행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됐다. 다만 중·장기적 공약으로는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한 정책이 있었다. ‘우정원 리모델링’ 공약의 경우 총학의 자치회비나 교비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어 현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결국 현재 실행되지 못한 상태다. ‘차별화된 축제 조성’ 공약은 개념정의가 모호한 면이 있다.

학생복지 관련 공약은 ▲기숙사 여건 ▲장애학우 생활 ▲교육권 보장 ▲교통편 개선으로 나뉜다. 기숙사 여건에 관해서는 3가지 공약이 제시됐다. 제2기숙사 룸메이트 신장제도 변경을 기숙사 측에 요청해 첫 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머지 휴게실 개선, 세탁실 CCTV 설치의 아직 이행되지 못한 상태다.

‘장애학우들을 위한 개선사항’ 역시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상태다.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문의한 바로는 총학생회 측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형식적 강의 평가 ▲영어강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강의평가의 경우에는 시간강사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될 뿐, 전임교원에게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문제를 학교 측에서도 인지하고 교수 업적

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교통편 개선에 관한 공약에 있어서는 여러 노력이 보였다. 수원역 간 통학버스 1대의 노선변경을 통해 영통역-사색의 광장 간 셔틀버스를 만들었고, 서울-국제 캠퍼스 간 셔틀버스의 배차 시간을 비교적 수업 시간에 맞도록 조정한 바 있다. 증차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의 한계는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통 편의에 대한 부분은 개선된 측면이 있다.

종합해보면 주로 일회성 사업을 우선 실시한 결과 학우들에게 즉각적인 효용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 측과의 논의를 거쳐야하는 중·장기 사안을 놓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돼 보다 중요한 문제는 주로 후자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후 상황을 기대해야 할 상황이다.

●프라임사업 논의서 이원화 문제에 선봉

양 캠퍼스 총학은 임기 시작부터 ‘프라임사업 중재’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실제로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 소통위원회, 등책위에 참여하면서 대학본부와 수습 차례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또한 캠퍼스 별로 프라임사업과 관련한 총투표를 진행한 바도 있다.

그 과정에서 총학은 대학본부 측과 서울캠 총학의 관심도가 떨어진 ‘이원화캠퍼스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 이행을 요구했다. 그 결과로 프라임사업과 관련해 대학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즉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핫라인(Hot Line)을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총학회장은 학적 상에는 국제캠 단과대학에 속하지만 서울캠에 위치하기로 기획된 학교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많은 학우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수습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 총학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제안서 제출 시한으로 인해 사업 진행은 급속도로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서울캠 총학 외의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이외에도 총학은 학내 주요 사안에 관한 3개의 TF(학사제도, 마스터 플랜, 클린캠퍼스)를 만들었다. 한편 TF가 구성된 이후 학사제도 변경이나 마스터 플랜(SPACE 21



국제캠캠퍼스 김병경(체육학 2009·왼쪽) 회장,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부회장

사업의 일환)의 진척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중운위와 확운위 회의록 안건으로도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9월부터는 전국 대학생 단체와 총학을 중심으로 ‘입학금 반환 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캠 총학의 경우 참여하고 있지만, 국제캠의 경우 ‘청년하다 경희대 지부’ 회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캠 총학은 다음 등책위 이후 미래정책원에 TF 구성을 요청해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캠에서만 소송단이 400명이 넘어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이후 총학이 학교 측에 얼마만큼 협조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다시 갈등...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우리학교는 2017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신설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대학 교수들과 부총장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관련기사:대학주보 1608호 1면> 또한 현재 컴퓨터공학과 내에서는 커리큘럼 중복에 대한 우려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총학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거나, 학교 측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미흡한 면을 보였다.

●총투표 안건지 ‘답정너’ 논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위의 4개의 안건으로 총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총투표 안건을 접한 학우들은 편향된 질문지라는 여론이 일며 비판이 제기됐다. 제7차 중운위에서 학생 총회·학생 총투표 선택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실제로 비슷한 문제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는 ▲내용이 다소 정답이 결정된 느낌 ▲편향된 느낌이 있다 ▲안건은 중립적인 내용을 작성해야한다 ▲내용이 넓어 구체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우리가 학우들에게 1년 동안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편향된 내용은 아니다”는 발언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발언자는 회의록에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캠 역시 프라임사업 관련 안건의 편파성 논란이 불거진바 있는데, 투표를 미달로 무산된 반면, 국제캠의 경우 투표인원 6천 318명으로 기준을 넘기고 모두 찬성으로 결정된 것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감사와 공개의 차이

이번 총학은 체육대학의 예·결산 내역이 문제가 된 이후 각 단과대학의 자치회비 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총학의 주도로 각 단과대학까지 예·결산 내역을 따지는 것은 최근 ‘체육대학 OT비’ 논란 등으로 학생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학우들의 신뢰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한 제5차 중운위에서는 쓴 영수증 등을 보여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47대 서울캠 총학은 ‘결산 표준 지침’을 만들어 ▲사용내역 작성방법(6항목) ▲내부통제(7항목) ▲감사 관련(2항목)을 제시했다. 현재 국제캠 총학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는 자치회비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결산안과 영수증, 통장사본을 비교한 것에 그치고 있다. 예산안과의 적합성 검증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내부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앞

서 참고할 모델이 있음에도 보완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파티플랜에 특화... 춘·추계 축제 진행

이번 총학은 테마별 특강과 함께 ‘차별화된 축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륜스님, 취업 특강 등 다수의 특강을 진행하고 봄에 대동제, 얼마 전 가을에는 ‘경희한마당’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한 해를 지루할 틈 없이 채웠다. ‘파티플래너’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실제로 학우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경희한마당’의 공연 영상은 조회 수가 6천을 넘기도 했다.

10월 7일 기준으로 국제캠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약 240여 개의 게시물 중 축제와 관련된 홍보 및 안전의 게시물이 약 50개로, 전체의 5분의 1 수준이다. 비중을 볼 때 축제에 들인 공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축제는 연예인 초청공연 및 토크쇼로 구성됐다. 공약으로 내건 ‘차별화된 축제 조성’과는 먼 양상이었지만, 주점 이후의 물품을 청소노동자들에게 선물을 하는 활동과 함께 시험기간 직전 즐거움을 제공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SNS·접근성·소통

이번 총학은 활발한 SNS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공약 이행, 진행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성을 높였다. 공약으로 내세운 카카오톡 옐로아이디와 많은 페이스북 팔로워 수를 바탕으로 학내 주요 사안을 또한 공지하는 등 소통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한 달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총학은 학생들에게 가까이 있음을 보이려 노력한 학생회였다. 한편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간 면은 있지만, 학교 측과의 논의나 교육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성과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서울캠과 비교할 때 외부 집회 활동보다는 학내 활동에 집중했음에도 비교적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실적이 미흡했던 점은 성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홍보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묵묵히 학생 대표로서 학교 측과 협의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은 기간 동안 이행되지 못한 공약들과 함께 현재 학내 이슈들(입학금, 학사제도 등)을 고려해 이후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한류, 한글 매개한 문화 교류로 시작

전문가 칼럼

김중섭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해마다 한글날 즈음이면 기념행사 참석이나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다소 분주한 시간을 보내곤 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특히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진 느낌이다.

한글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문자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필자의 대답은 “물론”이다. 우선, 한글은 인류 문명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 발명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글자가 기원을 뚜렷이 알 수 없는 데 반해 한글은 창제와 반포 시기는 물론 누가, 왜 만들었는지도 분명하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을 통해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새로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세종의 애민정신과 실용주의, 중국어와 몽골어 등 주변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한글이다.

한글의 우수성은 편리함과 경제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표의문자인 한자는 우리말 소리를 제대로 적을 수 없을 뿐더러 3000~5000자 정도를 외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반면에 표음문자인 한글은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 24자를 익히면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 발음기관이나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뜨고 한 획씩 더해 가는 방식으로 글자를 씌으로써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든 점도 큰 장점이다. 이렇듯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서 한글의 우수성은 현대의 언어학자들도 널리 인정하는 바이다. 일례로 한글은 1990년대 중반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세계 30여 개 주요 문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실제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



들도 20시간 정도면 대개 자모를 익힐 수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 한글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한국이나 한국어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한류’의 영향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한국 드라마와 대중가요가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시아, 남미로까지 번지면서 변방의 작은 나라로만 알려져 있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휴대폰이나 화장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류의 경제 효과를 논하는 기사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한류의 지속과 확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차적인 이유는 대중문화의 속성상 유행 주기가 짧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홍콩 느와르의 쇠퇴를 예로 들듯이 한류 역시 질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

고는 장기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다.

오늘과 같은 한국어 교육의 성장과 발전은 한류에 빚진 부분이 많다. 이제는 반대로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한류로 인해 갖게 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욕구로 연결하는 데 한국어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을 것이다.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즐기 위해서는 대사나 노랫말을 이해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한국인들의 사고나 행동 양식 등 문화를 알게 된다. 이때 더 깊이 알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거나 채워 줄 수 있는 매개가 바로 한국어이다. 한류가 한 때의 유행이 아닌 역동적인 국제 화합과 민간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세계적인 강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이라 하겠다. 한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를 매개로 한 문화 간 교류와 소통에 힘써야 한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리고 또 그들의 문화도 적극 수용하는 개방적 자세를 보일 때 한국어와 한류 모두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는 지난 30년간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적 실천을 선도해 왔다. 그 결과 수많은 외국인 동문들을 배출했으며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한국과의 문화 경제적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어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류의 발전, 한국어를 통한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의 장에서 본교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그간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 사람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의 정진을 다짐해 본다.

참여마당

이규현  
언론정보학 2015



## 내 삶을 정의하는 습관적 욕심

평범했던 한 중학생은, 흔한 영화나 드라마 속 영웅의 ‘비범하기 전의 모습’처럼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 남들 앞에 나서 무언가를 제대로 못하는 건 둘째고,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는데도 여러모로 걸림돌이다. 사는데 방해가 되고 자격지심만 부르는 성격이 마음에 들 리 없었다.

불만이 생기는 그 때, 그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부여될 여지가 생긴다. 중학생은 바뀔 수 있다면 다소의 어려움을 감내할 각오를 할 정도로 자신이 싫었을 것이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았을 것이고, 속이 울렁거려도 어디든 앞에 나서보려 했을 것이다.

중학교 삼년 째에 ‘반장’을 했다. 고등학교 둘 째 해에 학교 ‘신문반 편집장’을 했다. 가진 능력보다는 ‘자신감’이 소양 목록에 포함된 여러 대회에 지원도 많이 했다. 뒤돌아보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성취는 달콤했고 더 욕심이 났다. 지금 다른 도전을 결심한 ‘그’는 우리학교 언론정보학과 학회의 장을 맡고 있는 필자다.

언론정보학과 내 유일무이 ‘연극’ 학회인 ‘희망연극문화부’는 연극에 관하여 탐구활동을 하며 연간 세 번의 무대를 올리고, 관객들과 연극의 본연적 의미를 공유하는 학회이다. 연극을 통해 사람들 앞에 서보자는 결심이 사실 도전의 본질이긴 했다. 그 걸 하다 보니 연극의 재미 뿐만 아니라 단체에 대한 애정도 생겨 학회장을 맡게 됐다.

“

그리고 저지르자, 내가 상상한 이상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

학교와 집만이 사회의 전부였던,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에게는 무거운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 예산 관리, 공연 기획 뿐 아니라 단체의 얼굴로써 홍보 활동까지 내외적으로 많은 역할이 있는 자리다. 설립된 지 오래된 학회다보니 까마득한 선배님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관계없이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하니, 처음엔 정말이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계속 부딪히다 보니 스스로도 능숙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쉽지는 않았다. 회의감, 박탈감도 느껴보고 타인으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다. 후배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모두를 통솔하는데 있어서의 부담감도 경험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충이 많았던 한 학기였다.

폭풍처럼 세 번의 공연이다 끝났다. 임기 중 사실 상 굴곡찬 일들을 모두 해낸 셈이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지난 도전을 돌아보니 내 그릇은 정말 많이 넓어졌다. 뭇도 모르고 하겠다고 한 일기에 더 힘들었다. ‘욕심이 앞서서’ 잘못된 건지 고민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욕심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어느샌가 욕심을 부리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습관은 내 삶을 이어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 닿는 데까지 욕심 부리자. 그리고 저지르자. 그러면 내가 상상한 이상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961-0081~2

http://www.jie.ac.kr

● 등록기간

정규 등록기간 : 영어/제 2외국어 : 2016.10.10.(월) ~ 2016.10.28.(금)

추가 등록기간 : 영어 : 2016.10.31.(월) ~ 2016.11.11.(금)

제 2외국어 : 2016.10.31.(월) ~ 2016.11.04.(금)

● 강의시간표

● 강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6.10.31(월) ~ 12.09(금)

● 레벨테스트

영어회화 : 10.26(수), 10.27(목) 17:30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10.26(수) 17:15

테스트 후 반 배정 : 2016.10.28(금) 저녁 6시 이후 www.jie.ac.kr에서 확인

● Registration

English : Oct 10th (Mon) – Nov 11th (Fri)

Foreign language : Oct 10th (Mon) – Nov 04th (Fri)

Official date : Oct 31nd (Mon) – Dec 09th (Fri)

● Level Test into Operation

English : Oct 26th (Wed), 27th (Thu) at 17:30

Japanese, Chinese, Spanish : Oct 26th (Wed) at 17:15

Confirmation : Oct 28th (Fri) after 18:00 at www.jie.ac.kr

	7:45~8:45	9:00~10:20	10:20~11:00	16:00~16:30	16:30~17:00	17:00~17:30	17:30~17:50	18:00~18:30	18:30~18:50	18:50~19:00	19:00~19:20	19:20~19:30	19:30~19:50	19:50~20:00	20:00~20:20	20:00~20:50
월	영어 Ted Talk(초급)								영어							
	일본어								일본어(초급/고급)							
	중국어	중국어(초급1)							중국어							
					프랑스어(초급1)				프랑스어(초급3-A)							
화	스페인어(초급2)				스페인어 Book Club				베트남어(초급1)		이탈리아어(초급1)					
	영어 Ted Talk(중급)								스페인어(초급2)		스페인어(중급1)					
	일본어								일본어(초급2/중급1/중급2)							
	중국어								중국어				프랑스어(초급3-B)			
수					프랑스어(초급1)				베트남어(초급2)							
								독일어(초급1)		독일어(초급3)						
								Ted Talk(중급)/Book Club(중급)								
	스페인어(초급1)					스페인어 Video-Debate			스페인어(초급1)				스페인어(중급2)			
목	영어 Ted Talk(중급)								영어							
	일본어								일본어(초급/고급)							
	중국어	중국어(초급1)							중국어							
						프랑스어(초급1)				프랑스어(초급3-A)						
금									베트남어(초급1)							
									독일어문법		이탈리아어(초급1)					
	스페인어(초급2)								스페인어(초급2)			스페인어(중급1)				
	영어 Ted Talk(중급)								영어							
토	일본어								일본어(초급2/중급1/중급2)							
	중국어	빠싱중국어							중국어							
						프랑스어(초급1)				프랑스어(초급3-B)						
									베트남어(초급2)							
일	스페인어(초급1)							독일어(초급1)		스페인어(초급1)			독일어(초급3)		스페인어(중급2)	
		빠싱중국어							독일어문법							



보도

건강 위협하는 석면 건축물...우정원 가장 심각

학내 석면 건축물 분석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교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2013년 진행한 우리학교 석면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우리학교 건물은 준공년도가 오래된 만큼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도 상당했다. 특히 서울캠퍼스(서울캠) 건물이 국제캠퍼스(국제캠) 건물보다 준공년도가 20년 이상 더 오래돼 전체 면적에서 석면을 사용한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건설, 자동차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어온 물질이다. 단열성과 내열성 등 장점이 많고, 가격이 저렴해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어 건축 내외장재로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석면 건축자재는 분진 형태로 대기 중에 퍼질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코와 입을 통해 사람들의 몸에 침투하기 때문이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 시 석면 분진이 폐에 축적돼 폐섬유조직의 증식을 유발하는 데, 이는 호흡곤란과 가슴에 통증을 수반한다. 증상이 악화되면 폐 부분에 종양이 생기거나 석면 조각이 생기고, 심할 경우 폐암까지 유발해 심각한 건강 이상을 초래한다.

석면 대부분 천장마감재로 사용  
분진 발생시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

우리학교의 석면 사용 면적을 살펴보면, 서울캠 건물에 약 54,000m<sup>2</sup>, 국제캠 건물에 약 71,000m<sup>2</sup>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제캠이 서울캠에 비해 캠퍼스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내 건물을 이용하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캠에서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가장 큰 건물은 의과대학관과 중앙도서관으로, 각각 10,600m<sup>2</sup>와 8,075m<sup>2</sup> 규모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됐다. 국제캠에서는 우정원과 중앙도서관이 각각 22,800m<sup>2</sup>와 11,000m<sup>2</sup>가 사용돼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반면, 석면이 가장 적게 사용된 건축물은 서울캠의 세화원, 국제캠의 예술디자인 대학관이었다. 이들 건축물에서는 각각

77.6m<sup>2</sup>, 5.31m<sup>2</sup>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됐다. 석면 건축자재 사용량은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완전히 금지됐는데, 2005년에 준공된 세화원과 2007년에 준공된 예술디자인 대학관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만큼 석면 사용량도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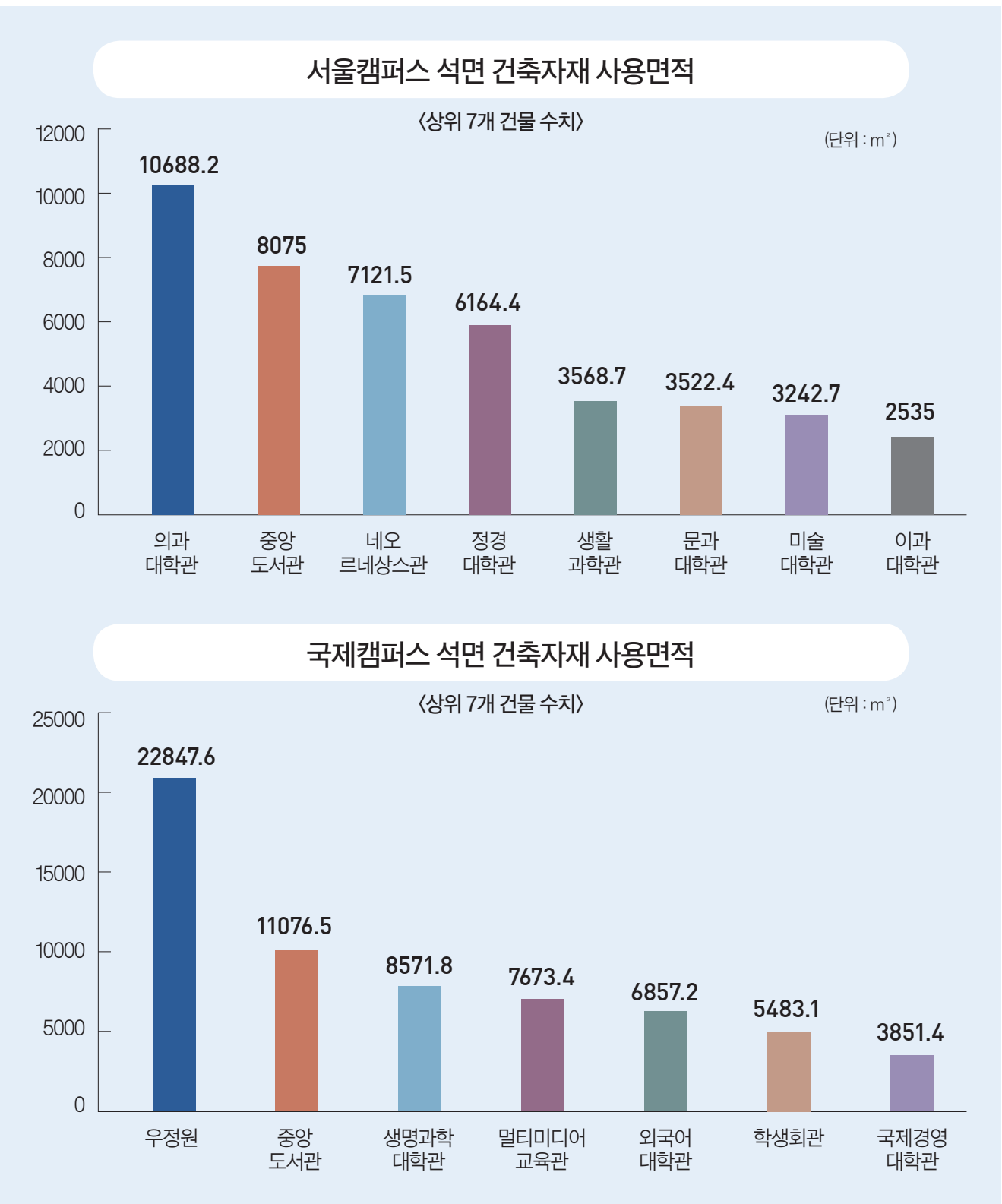
석면은 학내 건물에 ‘텍스’라 불리는 천장마감재 형태로 대부분 사용됐다. 석면 천장마감재는 석면 함유율이 3%에서 6%이며 백색의 벌레 무늬를 띄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장기간 사용되면 충격에 의해 쉽게 부서져 분진을 날리기 때문에, 건축연도가 오래된 학내 건물들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캠은 석면 건축자재 사용 장소 139곳 중 133곳에 천장마감재 형태로 석면이 사용됐고, 이를 제외한 6곳에서는 배관에만 석면이 사용되었다.

석면 검출되지 않은 건물  
서울캠퍼스 오비스홀이 유일

국제캠은 서울캠과 마찬가지로 천장마감재가 69곳에 사용돼 가장 많았고, 12곳에서는 배관에 사용되었으며, ‘발라이트’라 불리는 석면 벽재도 9곳에서 사용됐다.

이 중 배관이나 벽재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는 인적이 드문 곳에 사용됐거나, 사용량이 미미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하지만 천장마감재는 학내 건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강의실, 복도 등 학생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곳에 사용됐기 때문에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양 캠퍼스가 위치한 동대문구청과 기흥구청의 환경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이 대부분 학내 건물에 상당량 사용됐지만 우리학교 각 건물의 석면 위해등급은 모두 ‘낮음’으로 나타났다. 석면 위해등급은 ‘높음’, ‘중간’, ‘낮음’ 세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하지만 ‘낮음’ 등급이라고 해서 석면에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낮음’ 등급 또한 석유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공시하고 있다. 이는 손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각적인 보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위해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유지관리와 보수가 요구되고, 가장 위험한 단계인



‘높음’ 등급은 이미 석면 건축물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해 등급은 언제든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건물도 있었다. 서울캠의 경영대학관 ‘오비스홀’은 석면이 없는 유일한 건물이었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m<sup>2</sup> 이상인 건축물을 뜻하지만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오비스홀은 석면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비스홀은 2008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법규의 영향을 받아 석면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제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본부 측은 “석면 제거작업을 각 건물의 층마다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석면은 모든 층을 전체적으로 제거해야 석면 건축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한 뒤 내년 1월 한 번에 석면 조사결과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7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8회 째를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일시 : 2016년 9월 30일(금)~10월 31일(월) 17:00
- 대 상 : 교수, 교직원, 개인 및 단체
- 시상분야 : 교육, 연구, 실천 (3개 부문)
- 시상인원 : 분야별 약간 명
- 추천방법 : 첨부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 (본인 및 타인 추천)
  1. 방문 :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2.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3. E-mail: pr@khu.ac.kr
- 선정절차 :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 수 여 식 : 2016년 12월 中 (Magnolia 2016-1부 목련회의)시 시상
- 문 의 : 대외협력처 홍보실 02) 961-0023~6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실

INVITATION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설립50주년 기념포럼

춤으로 50년,  
영원히 나날리

1부 포럼 주제 : 반세기 움직임, 미래의 무용을 디자인하다

유옥재 교수(강원대학교 무용학과 명예교수)  
임성배 교수(텍사스 세인트메리대학교 경영학과 종신교수)

2부 만찬

● 일시 : 2016년 10월 29일(토) 오후 3시

● 장소 : 오비스홀 대회의장(151호), 무용학부 로비(B1)

●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 주관 :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 후원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동문회,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동문회, 수아비즈화장품, 미디어인, 오페라마 예술경영연구소

경희대학교 무용학부